

2017년 화제의 인물

국내

■ 개 관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촛불시민의 힘은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5월에 조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는 재판을 받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의혹으로 1·2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고, 미르·K재단 출연 강요, 삼성 뇌물 사건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고졸 신화’를 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외교부 첫 여성 수장인 강경화 장관, ‘재벌 저격수’였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이 문재인 정부의 관료로 주목 받았다.

경제계에서는 이재웅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삼성그룹 총수로는 처음으로 구속됐다.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총괄회장은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

박성현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무대에서 39년 만에 신인상과 올해의 선수상, 상금왕을 휩쓰는 대기록을 썼다. 작가 조남주는 페미니즘 소설 ‘82년생 김지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즐거운 사라’의 마광수 교수는 쓸쓸하게 세상을 등졌고, 배우 김주혁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 충격을 줬다.

■ 정치·사회

• 헌정 첫 대통령 탄핵과 평화적 정권교체 이룬 촛불시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이 드러나자 2016년 10월 29일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인 2017년 3월 11일까지 20차례의 촛불집회를 열어 박 대통령 탄핵과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끌었다.



▲ 3월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탄핵 환영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폭죽을 쏘아 올리고 있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주축이 된 촛불집회는 한 때 사상 최대 규모인 주최 측 추산 232만 명이 운집했고, 연인원으로는 무려 1천600만 명이 참가했다. 집회는 별다른 사고 없이 평화적으로 진행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선보였다. 이후에도 4월 29일까지 3차례 집회를 더 열어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국정농단 주범들과 재벌 총수의 구속,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을 촉구했다.

촛불시만들은 독일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이 수여하는 '에버트 인권상'을 수상했다.

• '적폐청산·국민통합' 문재인 대통령

사상 초유의 탄핵 정국 속에 치러진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적폐청산과 국민통합의 가치를 내걸고 당선됐다. 적폐청산과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한반도 평화구상과 같은 큰 틀의 개혁 의제를 속도감 있게 제시하고 국정 운영의 기초를 닦았다.

5·18 기념식과 세월호 유가족, 가슴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등을 대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파격과 소통, 감성의 리더십을 보여준 덕에 정권 출범 후 반년이 넘도록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율 70%대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정상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열고 무너진 '4강 외교'를 신속하게 수습했다.



▲ 5월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7주년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5월 유족인 김소형씨를 위로하고 있다.

조각 과정에서 일부 고위공직자 후보들이 잇따라 낙마하면서 이른바 '5개 인사기준'이 후퇴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한반도 안전자본'도 시험대에 오른 채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

• '대통령에서 구치소 수감자로' 박근혜 전 대통령

'대한민국 최고 통치자'에서 '구치소 수감자'로 수직 하락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당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떠안고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이란 오명을 쓴 채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고, 2017년 3월 10일 현재의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삼성동 자택에 잠시 머물다 3월 31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됐고,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국정농단의 주역이자 비선 실세였던 최순실 씨에게 12월 14일 징역 25년을 구형,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먹구름을 드리웠다.

• 법정에 선 '비선 실세' 최순실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서 국정농단 사건 주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에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후 줄곧 해외에 머물다 같은 해 10월 말 전격 귀국했다. 검찰에 출석해 "죽을죄를 지었다."고 사과했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억울하다."며 적극적인 항변에 나섰다.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의혹으로 1·2심에서 모두 징역 3년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밖에 미르·K재단 출연 강요와 삼성 뇌물수수 등 남은 사건은 병합돼 2018년 초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예상된다는 관측이 많다.

• 사법개혁 추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9월 26일 임기 6년의 대법원장으로 취임했다.

진보·개혁 성향 판사들이 만든 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며 법원 내 가장 많은 회원이 참여한 연구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및 2대 회장을 지냈다. 법원 내 대표적 개혁 법관으로 알려졌다. 춘천지방법원장에서 대법원장으로 직행해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대법원장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분산할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공언하고 법관 서열화의 핵심 고리로 여겨지는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하는 등 사법부 개혁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 '적폐수사' 진두지휘하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2013년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수사' 당시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이끌었으나 지휘부와의 불협화음으로 '항명 파문'에 휘말린 후 수사에서 배제돼 고검 검사로 전보된 데 이어 4년간 수사 일선을 떠나 있었다.

하지만 2016년 1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합류해 국정농단 수사에서 큰 역할을 했다. 새 정부가 출범한 뒤 5월 19일 청와대가 직접 발표한 검찰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전국 최대 검찰청을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돼 화려하게 복귀, '적폐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 귀순 북한 병사 치료한 이국종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

11월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하다 총상을 입은 북한군 오 모(24) 씨의 집도의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같은 달 15일 오 씨의 수술 경과와 체내 기생충 감염 상태 등을 언론에 설명해 정의당 김종대 의원으로부터 "(오 씨에 대한) 인격 테러"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22일 "의료진에게 환자의 인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목숨을 구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반박하며 국민적 관심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권역외상센터에서 일하는 의료진의 열악한 현실을 토로하며 여건 개선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보건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에 시설과 인력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으며 국회도 권역외상센터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 아주대병원에는 "이국종을 돕자."며 기업체와 일반 시민의 후원이 쇄도했다.

● **‘유리천장’ 깨 강경화 외교장관**

두꺼운 ‘유리천장’을 깨고 70년 외교부 역사상 첫 여성 장관으로 임명됐다.

화려한 이력과 뛰어난 영어 실력, 은발로 대중의 관심을 받으며 문재인 정부의 ‘스타’ 장관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다. 청문회에서 위장전입과 체납 등의 의혹이 불거지며 위기도 겪었지만, 대통령의 신임과 일부 시민단체,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외교 수장으로 입성에 성공했다. 이후 ‘순혈주의 타파’로 대표되는 ‘강경화표 혁신’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한반도 정세가 연일 긴장 국면을 거듭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과 중국 방문 등을 수행하고, 렉스 틸러스 미국 국무장관,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 등 주요국 외교장관과 수차례 회담 및 전화통화를 하며 국제적인 북핵 공조, 사드 갈등 해결 등에 힘을 쏟았다.

● **집권 6년 차, 핵·미사일에 ‘올인’한 김정은**

집권 6년 차를 맞은 2017년 핵·미사일 고도화에 사실상 ‘올인’했다.

1월 1일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준비가 ‘마감 단계’라고 선포한 뒤 7월 ICBM급 ‘화성-14’형 미사일의 두 차례 시험 발사와 9월 6차 핵실험 감행을 승인했다. 11월에는 또 다른 ICBM급 미사일 ‘화성-15’형 시험 발사를 마친 뒤 ‘국가 핵무력 완성’까지 선언했다.

북한의 핵능력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수준에 올라서면서 북미 관계도 임계점으로 치달았다. 새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거친 설전을 주고받으며 국제 외교의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북한에 대한 ‘완전 파괴’를 거론한 트럼프 대통령의 9월 유엔 총회 연설에 대응해 이례적으로 ‘국무위원장 성명’을 발표해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대내적으로 평양 시내 호화 신시가지인 려명거리 준공 등 치적사업을 벌이며 주민의 결속 강화에도 신경을 썼다. 눈엣가시였던 이북형 김정남을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독살하도록 지시한 사건은 국제 사회에 ‘잔혹한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굳히는 결과를 낳았다.

● **‘2인자’에서 밀려나 ‘처벌’받은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을 맡으며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최측근 실제로 승승장구하다가 2017년 말 한순간에 밀려났다.

국가정보원은 11월 국회 정보위에서 북한 노동당 조직지도부가 군 총정치국에 대한 검열을 진행해 그를 처벌했다는 첩보가 입수됐다고 보고했다. 첩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북한이 10월 7일 개최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2차 전원회의에서 최룡해가 당 조직지도부장에 오른 뒤 휘두른 첫 칼날의 희생양이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0월 13일 북한 매체에서 마지막으로 이름이 언급된 이후 공식 석상에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다.

당 조직지도부 군사담당 부부장으로 김정은의 군부 장악을 앞장서서 보좌했고,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2014년 군부 서열 1위인 총정치국장 자리에 오른 뒤 최룡해와 경쟁적으로 앞서거

니 뒤서거니를 반복하며 2인자로 자리매김해 왔지만, 이제는 링 밖으로 밀려나 행방이 묘연한 처지가 됐다.

■ **경제**

● **경제 사령탑 오른 ‘고졸 신화’ 김동연 경제부총리**

상업고등학교와 야간 대학을 나와 ‘고졸 신화’를 써 내려간 입지전적인 인물로, 문재인 정부 1기 경제팀을 이끄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취임 직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새 정부 ‘실세’가 참석하는 경제 한안 간담회를 정부서울청사 부총리 집무실에서 주재해 경제 ‘컨트론타워’로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전 정부에서는 중요 사안이 있을 때마다 청와대 별관에서 ‘서별관 회의’를 열었고 참가자는 물론 내용도 공개되지 않아 ‘밀실 회의’ 논란을 일으켰다.

사상 최대 규모인 428조8천억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끈질긴 설득으로 야당의 반대를 극복했으며, 여섯 차례나 주요 종단 지도자와 만나 소통하며 종교인 과세의 차질 없는 시행 방침을 천명하는 등 외유내강(外柔內剛)의 리더십도 보여줬다.

김 부총리는 기업의 부실을 예방하고 산업과 금융 양 측면을 두루 고려한 시장 중심의 대응을 강조한 새로운 구조조정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가운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왼쪽),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6월 2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경제한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장 된 ‘재벌 저격수’ 김상조**

새 정부가 처음으로 발표한 장관급 인사로 역대 다섯 번째 교수 출신 공정거래위원장이 됐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재벌개혁 운동에 매진한 ‘재벌 저격수’의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은 그 자체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취임과 동시에 이른바 가맹·하도급 갑질 근절 의지를 드러내고 골목상권 보호를 천명했다. 가맹점이 본사로부터 반드시 사야 하는 품목(필수품목) 공개를 추진하는 등 업계를 압박해 협회 차원의 자정 안을 끌어냈고 대기업의 기술 유용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며 악질적인 하도급 갑질에 경종을 울렸다.

공정위에 기업집단국을 신설해 경제력의 집중 완화, 지배구

조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재벌개혁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특혜 의혹, 공정위 출신 퇴직자의 전관 예우 등으로 훼손된 공정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퇴직자 접촉 제한, 공정거래 관련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 아만 검찰이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하는 전속고발권 폐지 등 쇄신안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 **‘박수 칠 때 떠난다’ 권오현 삼성전자 회장**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외병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으로 삼성그룹의 ‘총수 대행’을 하다 10월 경영 퇴진을 전격 선언해 재계 전체에 충격을 던졌다.

자신이 이끄는 반도체(DS)부문이 삼성전자의 사상 최대 실적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나온 퇴진 선언이란 점에서 충격파는 더 컸다. 퇴진 선언은 ‘박수 칠 때 떠난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한편으로는 ‘후임자와 경영 쇄신을 위한 용퇴’로 받아들여졌다.

실제 퇴임 후 삼성전자에는 대대적인 세대교체 인사가 단행돼 60대 사장단이 일제히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고 50대 젊은 피가 그 자리에 채워졌다.

경영 일선에서는 물러나되,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승진하며 종합기술원 회장을 맡게 됐다. 후배들을 위해 그동안의 경험과 경륜을 나눌 수 있는 역할을 부여받은 것이다.

● **‘갯뚜기’ 오뚜기 회장 함영준**

식품업계 오뚜기의 회장으로 7월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대화에 중견기업 대표로는 유일하게 참석해 주목받았다. 청와대는 오뚜기가 상생, 일자리 창출 등에서 모범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격려하고자 초청했다고 밝혔다.

오뚜기는 비정규직이 거의 없는 회사로 알려진 데다 사회공헌 활동, 라면가격 동결 등으로 ‘착한 기업’ 이미지를 쌓았다. 2016년 9월 별세한 창업주 함태호 전 명예회장이게 지분을 상속받으면서 1천500억원대의 상속세금을 5년에 걸쳐 분납하기로 해 편법 승계 논란이 잦은 재계에서 모범이 됐다.

소비자들은 오뚜기에 신을 뜻하는 ‘갯’(God)에 오뚜기의 ‘뚜기’를 합친 ‘갯뚜기’라는 별칭을 붙이기도 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7월 27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주요 기업인들을 초청해 개최한 ‘주요 기업인과의 호프미팅’에서 함영준 오뚜기 회장 등 참석한 기업인들과 건배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손경식 CJ 회장, 구본준 LG 부회장, 함영준 오뚜기 회장.

● **‘쓸쓸한 은퇴’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1948년 롯데를 창립한 지 약 70년 만에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됐다.

6월 한·일 롯데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에서 배제됐고, 8월에는 롯데 계열사 중 마지막까지 등기 임원 직위를 유지하던 롯데알미늄 이사회에서도 물러났다. 이로써 한일 롯데 모든 계열사 이사회에서 퇴임해 신격호 시대가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

1922년생, 95세로 중증 치매 증세가 있어 법정후견인의 도움을 받고 있다.

두 아들과 함께 롯데 경영 비리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받았으며, 12월 22일 1심 재판에서 배임 일부와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 벌금 35억원이 선고됐다. 다만 95세 고령이고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거액 탈세는 무죄로 판단 받았다.

● **‘첫 구속 삼성 총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월 17일 구속됐다. 1938년 대구의 ‘삼성상회’로 출범한 삼성그룹에서 구속된 첫 총수가 됐다.

2014년 5월 부친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사실상 삼성그룹의 경영을 지휘해 왔으나 구속 수감되면서 삼성그룹은 ‘선장 없는 배’ 신세가 됐다. 부친의 외병으로 조심스러운 경영 행보를 이어가다 2016년 10월 삼성전자 등기이사에 오르면서 자신의 경영 철학을 본격적으로 펼쳐보려던 시점에 예기치 않게 영어의 몸이 됐다.

변호인단과 함께 무죄를 주장하며 법리 공방을 벌였으나, 8월 1심 재판부는 뇌물 공여, 횡령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1월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성과주의’와 ‘세대교체’를 키워드로 하는 삼성전자 임원 인사를 단행해 ‘육중 경영’에 시동을 걸었다.

■ **문화·연예**

● **페미니즘 기폭제 ‘82년생 김지영’ 쓴 조남주 작가**

소설 ‘82년생 김지영’으로 여성들의 열렬한 공감과 지지를 받으며 페미니즘 확산에 불을 붙였다. 자전적인 경험과 함께 각종 통계 자료, 언론 기사를 녹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30대 중반 여성의 평균적인 삶을 세밀하게 그렸다.

2016년 10월 출간된 이 책은 5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서 대통령에게 선물하면서 주목받았다. 이후 ‘김지영’은 사회 각계에서 성차별이나 경력단절여성 문제를 얘기할 때 거론되는 여성문제의 아이콘이 됐다.

국회에서는 워킹맘의 육아뿐만 아니라 가사부담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일명 ‘김지영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82년생 김지영’은 2017년 출판계 베스트셀러 2위를 기록했으며 작가·출판인들이 뽑은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 조남주 작가가 11월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교동 다산카페에서 열린 페미니즘 소설 '현남 오빠에게' 기자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현남 오빠에게'는 '82년생 김지영'을 쓴 조남주 작가 등 여성작가 7인이 '페미니즘'을 주제로 발표한 소설 모음집이다.

• '즐거운 사라'로 세상과 싸우다 떠난 마광수

'즐거운 사라'로 자유로운 성(性) 관념을 펼쳤다가 세상의 벽에 부딪혀 고향을 곁다 9월 5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66세였다.

시인 윤희주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1977년 등단했다. 28세에 대학 교수로 임용돼 천재로도 불렸다. 1991년 소설 '즐거운 사라'를 펴내고 이듬해 10월 음란물 제작·반포 혐의로 구속되면서 예술과 외설의 경계에 대한 격렬한 논쟁을 일으켰다. 3년간의 재판 끝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연세대에서 해직과 복직을 반복하다 2016년 8월 정년 퇴임을 했으나 해직 경력 때문에 명예교수 직함을 달지 못했고, 필화 사건의 상처와 동료 교수들의 따돌림으로 극심한 우울증을 앓았다.

소설 '광마일기'와 시집 '가자 장미여관으로', 에세이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 시선집 '마광수 시선' 등을 펴냈고 별세 뒤 유작 소설집 '추억마저 지우랴'가 출간됐다.

• 50년 출판 외길 걸었던 박맹호 민음사 회장

국내의 대표적 출판사인 민음사를 창립해 50여 년간 한국 출판계를 이끌다 1월 22일 향년 84세로 별세했다.

문학청년으로 활동을 시작한 뒤 1966년 5월 서울 종로구 청진동 옥탑방에서 '울곧은 백성의 소리를 담는다'는 뜻을 담아 민음사를 창립해 문학의 저변을 넓히고 작가들을 발굴했다.

1973년 '세계시인선'을 처음으로 펴내고 1974년에는 '오늘의 시인' 총서를 시작해 시의 대중화에 기여했다. '오늘의 문학상', '김수영 문학상'도 제정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우학술총서' 등을 발간해 인문·학술출판 발전에도 기여했으며 민음사를 총 1만여 종의 책을 낸 대형 출판그룹으로 키워냈다. 출판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사후 금관문화훈장이 추서됐다.

• 세상과 작별한 한국 언더그라운드 음악계의 대부 조동진

방광암으로 투병하다 8월 28일 향년 70세로 세상을 떠났다. 자연 친화적인 시어와 서정적인 포크 선율로 1980~1990년대 한국의 언더그라운드 음악계를 이끌었다.

1966년 미8군 밴드로 출발해 작곡가로 이름을 알린 후 1979년 '행복한 사람'이 담긴 1집 '조동진'을 발표해 낮고 포근한 음색으로 큰 울림을 줬다. TV 등 대중 매체에 노출하지 않아 '얼굴 없는 가수'였지만 1980년 2집의 '나뭇잎 사이로'와 1985년 3집의 '제비꽃'이 큰 사랑을 받으면서 '포크계의 대부'로 우뚝 섰다. 당시 한대수, 김민기 등이 시대적 유감을 담은 포크의 흐름을 이끌었다면 그의 음악은 내면의 성찰과 사색이 담긴 노랫말과 아름다운 선율로 물길을 바꿔놓았다.

동아기획에서 좌장 역할을 하며 언더그라운드 음악가들이 창작곡으로 노래하는 시대를 열어 '조동진 사단'을 이뤘다. 1990년대 동생인 조동익·조동희 남매와 장필순, 이규호 등의 후배 음악가들이 모인 음악공동체 하나음악을 이끌기도 했다.

2017년 9월 후배들과 함께 하는 13년 만의 공연인 '꿈의 작업-2017'을 20일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떠나 안타까움을 더했다.

• 추락한 '박근혜 정부의 신데렐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박근혜 정부 최고 실세 장관으로 불리며 승승장구하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연루돼 현직 장관 신분으로 처음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초대 여성가족부 장관, 최초의 여성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에 발탁된 데 이어 2016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취임해 '박근혜 정부의 신데렐라'라는 별명을 얻었다. 문체부 장관 취임 후 불거진 국정농단 사태 속에서 정무수석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에 휘말렸으며, 결국 2017년 1월 구속된 뒤 구치소에서 사임했다.

7월 법원의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지만, 이후 정무수석 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와 보수단체를 지원하고 관제시위를 사주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의혹이 불거져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 '흥행 요정'으로 떠오른 배우 마동석

직접 기획·주연한 영화 '범도도시'가 대성공을 거두면서 총무로 최고의 흥행카드로 떠올랐다. 2004년 조선족 폭력조직 사건을 모티브로 삼은 '범도도시'는 추석 연휴 대작들 사이에서 예상을 뒤엎고 관객 687만 명을 동원하는 대성공을 거뒀다. 청소년관람 불가 등급 영화 중 역대 3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주먹 한 방으로 가리봉동 일대의 평화를 지키는 강력반 형사 마석도를 연기했다. 100kg 넘는 거구에 입만 열면 유머가 튀어나오는 마석도는 그에게 맞춤형 캐릭터였다. 코미디 영화 '부라더'에서도 주연을 맡아 흥행 2연타를 쳤다.

미국에서 이종격투기 선수의 개인 트레이너 등으로 일하다가 2005년 영화 '천군'으로 본격적인 연기활동을 시작했다.

2016년 '부산행'에서 좀비 떼를 때려눕히는 액션을 보여준 이후 히어로 역할로 할리우드의 러브콜을 받기도 했다. 온몸이 근육으로 뒤덮인 몸매는 조폭이나 형사가 제격으로 보이지만 영화 '굿바이 싱글' 등에서 우락부락한 외모가 귀여울 수도 있음을 입증했다.

• 편견 딛고 우뚝 선 흑인훈혈 패션모델 한현민

2016년 3월 국내 첫 훈혈 흑인 패션모델로 데뷔해 1년 반 만인 2017년 9월 국내 최대 패션 행사인 서울패션위크에서 20여 개 브랜드의 무대에 섰을 정도로 주목받는 톱 모델로 부상했다.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전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10대 30인' 명단에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리면서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았다.

한국인 어머니와 무역업을 하던 나이지리아인 아버지 사이에서 5남매 중 장남으로 서울에서 태어났다. 넉넉지 않은 형편 탓에 야구 선수의 꿈을 접고 중학교 때부터 온라인 쇼핑몰 피팅 모델을 하며 패션모델의 꿈을 키웠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사진 덕분에 현 소속사에 캐스팅되면서 2016년 3월 패션모델로 본격 데뷔했다. 188cm의 훗칠한 키와 어릴 적 놀림 당했던 피부색이 오히려 강점이 됐다.

톱모델로 부상하면서 패션계 이외의 분야에서도 다양한 러브콜을 받았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롤 모델로 떠오른 그를 '다문화 인식개선 홍보대사'로 선정했고, 한복진흥센터도 한복 홍보대사로 영입했다. 나아가 예능 프로그램으로도 영역을 넓혔다.

• 하늘 무대로 떠난 연극배우 윤소정

연극 무대를 중심으로 영화와 드라마를 넘나들며 활발하게 활동하다 6월 16일 패혈증으로 별세했다. 향년 73세였다.

1962년 TBS 1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50여 년간 '초분', '따라치의 향연', '신의 아그네스', '잘 자요, 엄마' 등 수많은 연극에 출연하며 선 굵은 연기를 선보였다.

'올가미', '이재수의 난', '이대로 죽을 순 없다', '그대를 사랑합니다' 등 영화와 '대망', '잘했군 잘했어', '내 딸 꽃님이', '청담동 앨리스', '결혼의 여신', '폭풍의 여자' 등 드라마에도 다수 출연했다. 특히 1997년 '올가미'에서는 아들에게 집착하는 시어머니 역으로 대중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사전 제작으로 촬영한 TV 드라마 '엽기적인 그녀'가 유작이 됐다. 동아연극상과 대중상영화제 여우조연상, 이해랑 연극상, 대한민국연극대상 연기상 등을 받았다. 남편 오현경과 딸 오지혜 모두 배우인 배우 가족으로도 유명했다.



▲ 6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열린 배우故 윤소정의 장례에서 윤소정의 딸 배우 오지혜가 유족대표로 인사를 하고 있다.

• 마지막까지 연기 혼 불태운 배우 김영애

철통암으로 투병 중에도 마지막까지 연기 혼을 불태우다 4월 9일 향년 66세로 별세했다.

2012년 MBC TV '해를 품은 달' 촬영 도중 철통암 선고를 받았지만 수술과 치료를 병행하면서 불굴의 의지로 작품 활동을 이어갔다. 2016년 10월 KBS 2TV 주말극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출연 도중 급작스럽게 병세가 악화해 병원에 입원했고, 이후 넉 달 가까이 병원에서 외출증을 끊어가며 드라마 촬영 현장을 오갔다. 극심한 통증에도 진통제로 버티며 불굴의 정신력을 발휘한 끝에 드라마의 마지막까지 함께한 후 세상과 작별했다.

1971년 MBC 공채 탤런트 3기로 연기 생활을 시작해 '당신의 초상' '엄마의 방' '빙점' '가을여자' '아버지' '형제의 강' '파도' '장희빈' '달려라 울엄마' '황진이' '로열 패밀리' 등의 드라마를 통해 꾸준히 안방극장에서 정상의 인기를 누렸다.

2009년 '애자'로 영화계에 복귀해 이름을 날렸다. 투병 중에도 '내가 살인범이다' '변호인' '우리는 형제입니다' '헌기증' '카트' '허삼관' '특별수사 사형수의 편지' '인천상륙작전' 등에 출연하며 명연기를 펼쳤다.

• 불의의 사고로 떠난 배우 김주혁

10월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에서 교통사고로 45세를 일기로 숨졌다.

1998년 SBS 공채 탤런트로 연기를 시작했다. 데뷔 초반에는 배우 고(故) 김무생의 이들로 주목받았지만 곧 '싱글즈', '광식이 동생 광태', '아내가 결혼했다' 등에서 인간적이고 따뜻한 매력을 선보이며 독자적인 연기세계를 구축했다.

드라마 '프라하의 연인', '무신', '구암 허준' 등으로 안방극장에서 팔색조 연기를 펼쳤다. 예능 프로그램 '박2일'에서는 '구태이 형'으로 불리며 소탈한 모습으로 사랑받았다. 데뷔 20년 차인 2017년 영화 '공조'와 '석조저택 살인사건'에서 악역으로 이미지 변신에 성공하며 연기 인생에 전환점을 맞았다. 드라마 '아르곤'에 출연하고 2018년에 개봉 예정인 영화 '흥부'와 '독전'을 촬영하는 등 왕성하게 활동하는 와중에 비보가 전해졌다.

사고 당시 차량은 접촉사고 이후 돌연 인근 아파트 벽면으로 돌진해 부딪혔다. 부검 결과 음주나 약물의 영향은 없었고 사고 원인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 K팝 한류 다시 살린 방탄소년단

2017년 '팝의 성지'인 미국을 중심으로 해외에서 연일 새 기록을 쓰며 사이 이후 주춤했던 K팝 한류의 불씨를 되살렸다.

9월 출시돼 판매량 150만 장을 돌파한 앨범 '러브 유어셀프 승-하'(LOVE YOURSELF 承-Her)는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 7위에 진입하며 한국 가수로는 최고 기록을 세웠다. 11월 공개한 '마이크 드롭'의 리믹스 버전도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에 28위로 진입해 K팝 그룹 최고 기록을 냈다. 5월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K팝 그룹 최초로 '톱 소셜 아티스트'상을 받았으며, 11월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공연을 펼친 뒤 미국 ABC, NBC, CBS 등 방송사들의 인기 토크쇼에 초대됐다. 12월 31일 ABC 신년맞이 쇼 '뉴이어스 로킹 이브'에도 출연했다.

데뷔 초기부터 트위터를 기반으로 일상의 사진과 영상을 선보이며 팬들과 친밀하게 소통했고 청춘의 공감을 얻는 서사를 음악에 담아 세계에 포진한 팬덤 '아미'를 이끌었다. 이들의 트위터는 한국 계정 최초로 1천만 팔로워를 돌파했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리트윗된 계정에 등록했다.

● '프로듀스 101'이 탄생시킨 '괴물 신인' 워너원

4~6월 방송된 넷플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즌2에서 탄생한 11인조 보이그룹으로 10~20대부터 중년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팬을 이끌며 데뷔와 동시에 '괴물 신인'으로 불렸다.

8월 데뷔 공연을 2만 석 규모의 고척스카이돔에서 열었다. 데뷔 앨범 '1X1=1(TO BE ONE)'은 판매량 73만3천 장, 11월 발표한 리패키지 앨범 '1-1=0(NOTHING WITHOUT YOU)'은 60만3천 장 넘게 팔리며 두 장의 총판매량이 130만 장을 돌파했다.

미디어를 발판으로 태어난 이들이 아이돌에 무관심했던 중년 여성들까지 팬으로 합류시키는 현상을 만들어내며 시장 판도를 흔들자 방송사들이 아이돌 육성 오디션 프로그램 제작에 뛰어드는 흐름도 생겨났다.

■ 스포츠

● 'LPGA 투어 3관왕' 골프선수 박성현



▲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39년 만에 신인상, 올해의 선수상 등을 받은 '슈퍼 루키' 박성현이 12월 4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후 환하게 웃고 있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무대에서 39년 만에 신인상과 올해의 선수상, 상금왕을 휩쓰는 대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2017년 LPGA 투어에 데뷔해 7월 메이저 대회인 US여자오픈에서 데뷔 첫 우승을 거머쥔 데 이어 8월 캐나다오픈에서도 마지막 날 대역전극을 펼치며 우승했다.

'슈퍼루키'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10월 일찌감치 신인상을 확정했고, 시즌 상금 233만5천883달러로 상금 1위에 올랐으며, 유소연과 나란히 올해의 선수상도 받았다. 평균 타수에서는 2위를 차지해 전관왕 등극은 아깝게 놓쳤으나 1978년 낸시 로페스(미국) 이후 처음으로 신인이 올해의 선수상을 차지하는 위업을 달성했다. 11월 초에는 LPGA 투어 신인 최초로 세계랭킹 1위에 올라 1주간 머물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골프장에서 열린 US 여자오픈 최종 라운드를 관전한 후 트위터를 통해 우승 축하 메시지를 전했고, 이후 11월 방한 국회연설에서 다시 한번 박성현을 치켜세우기도 했다.

● '한국 스포츠의 거목' 김운용 전 IOC 부위원장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제 스포츠계 리더로 활약하며 국기(國技) 태권도의 세계화를 이끌다 10월 3일 향년 86세로 타계했다.

외교관의 길을 걷다가 1971년 대한태권도협회장에 취임하며 스포츠와 본격적으로 인연을 쌓았다. 1986년 한국인으로는 역대 여섯 번째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에 선출됐고 이후 대한체육회장, IOC 집행위원과 부위원장 등을 지내면서 1988년 서울올림픽과 2002년 한일 월드컵 등 굵직한 국제대회의 국내 유치에 힘을 보탰다. 2000년 시드니올림픽 개최식에서는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선수단 동시 입장이라는 업적을 이뤘다.

'태권도 대부'로 불리며 국기원 개원과 세계태권도연맹 창설을 주도해 태권도 세계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태권도가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 처음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 데에도 결정적 역할을 했다.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유치를 둘러싼 '뇌물 스캔들'에 휘말렸고, 2010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투표 과정에서 강원도 평창의 유치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오랜 독주에 따른 부정적 평가도 뒤따랐다.

국제

■ 개관

2016년 미국 대선에 이어 2017년 프랑스 대선, 독일 총선 등 중요 선거가 줄줄이 치러지며 새로운 인물이 국제무대 전면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특히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월 취임 이후 좌충우돌 행보로 미국은 물론 세계를 흔들며 뛴다. 중국에선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이 '시황제' 지위에 올라 '스트롱맨'(Strongman) 전성시대를 알렸다.

유럽에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총선에서 승리해 존재감을 각인시켰고 신에 정치인 돌풍을 일으키며 프랑스 대통령이 된 에마뉘엘 마크롱은 지지율 급락의 아픔을 겪은 후 안착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제1 왕위계승자인 모하마드 빈살만은 사우디판 '왕자의 난'으로 국제사회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할리우드 거물 영화제작자인 하비 와인스틴은 성폭행 전력이 폭로됨으로써 몰락했고 이를 계기로 '성폭력, 나도 당했다'는 '미투(Me too) 운동'이 전 세계로 퍼졌다. 미안바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는 군부의 로힝야족 '인종청소'에 방관했다는 비난을 샀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도 대북 강경책으로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독일 통일의 주역’인 헬무트 콜 전 총리와 미국 카터 정부의 외교 브레인이었던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미국 성인잡지인 플레이보이를 만든 휴 헤프너 등은 세상을 떠나면서 생전 활동이 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 화제의 인물

• ‘마이 웨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2016년 11월 대선에서 당선돼 2017년 1월 제45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경제, 무역, 외교, 국방, 환경 등에서 미국의 이익만을 좇는 마이 웨이 행보로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처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공식 탈퇴에 이어 세계기후변화협정, 유네스코 등에서도 발을 뺐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한국·일본 등 주요 동맹국들에게는 방위비를 더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나프타(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폐기 가능성을 위협하며 재협상에 착수했다.

‘러시아 스캔들’ 특검 수사에서 수세에 몰린 그는 공약 이행을 명분으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주(駐)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명령을 내렸다. 거액기부금 납부지지 세력인 유대인을 겨냥한 조치였으나, ‘화약고’ 중동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트럼프는 미국 내에서 반(反)이민 정책을 밀어붙이며 사회 갈등을 조장했다. 또 미국 버지니아주 샬러츠빌 유혈사태 등에서 책임 소재를 두고 인종 갈등을 부추기는 듯한 양비론(兩非論)으로 논란의 주인공이 됐다.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설전을 벌이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기도 했다. 김정은을 “병든 강아지”로 표현하는 등 ‘말 폭탄’에 그치지 않고, 독자적인 대북 제재에 나서는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을 압박해 대북 제재 수위도 높여가고 있다.

• ‘시황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1인 지배체제를 구축해 마오쩌둥(毛澤東)과 덩샤오핑(鄧小平) 반열에 올라 ‘시황제’로도 불리며 중국 절대권력자가 됐다.



▲ 시진핑 집권 2기의 시작을 알리는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체대표대회가 10월 18일 개막한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당 대회에서 성과보고를 하고 있다.

2012년 말 중국 공산당 제18차 당 대회를 계기로 임기를 시작하면서 총서기·국가주석·중앙군사위 주석이라는 당·정·군 3권을 한꺼번에 거머쥔 시진핑은 2017년 10월 열린 제19차 당 대회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시진핑 사상’을 공산당 당장(黨章·당헌)에 편입시켰다. ‘마오쩌둥 사상’과 어깨를 나란히 한 셈이다.

제19차 당 대회에서 후계자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15년 집권의 길을 마련했다. 중국 최고권력기관인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25명에 측근을 대거 포진시켜 1인 지배체제의 기반을 확보했다. 2050년까지 세계 최강국을 목표로 중국몽(中國夢) 실현 로드맵도 제시했다.

중국의 핵심이익엔 절대 양보가 없다는 단호함과 강경함을 바탕으로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을 모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했다. 북핵 불용이라는 기본원칙과 함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기존 입장을 토대로 이른바 ‘쌍중단(雙中斷)·쌍궤병행(雙軌並行)’을 요구하면서 한국·미국 등의 해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유럽의 샤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창당 1년이 안 된 신생정당 ‘앙마르슈’(En Marche)를 이끄는 ‘정치 신예’로 2017년 5월 프랑스 대선에서 기성 정치에 저항하는 공약으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프랑스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24세 연상 부인 브리짓 트르노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득표에 한몫했다.

당선 후 복지예산 삭감, 노동규제 완화, 부유층 감세 등의 정책을 밀어붙이자 일방통행식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지지율이 급락했다. 이후 친기업 정책 등 각종 국정과제가 안착하면서 급락했던 지지율은 반등세를 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의 국제사회 영향력이 약화된 틈을 타 마크롱은 지구촌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미국이 파리기후협정 탈퇴 의사를 밝히자 그 공백을 메우겠다고 약속했고, 사드 알 하리리 레바논 총리가 TV 연설로 사임을 발표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자 하리리 총리와 가족을 프랑스로 초청해 중동지역 ‘피스메이커’로도 나섰다.

• ‘4연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영국의 마거릿 대처 전 총리와 함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 지도자로 손꼽힌다. 2005년 처음 총리가 된 메르켈은 2017년 9월 독일 총선에서 또 한 번 승리를 거두며 최초의 여성 총리, 동독 출신 첫 통일 독일 총리라는 기록에 이어 ‘정치적 스승’인 헬무트 콜 전 총리에 이어 4연임 총리라는 새로운 기록까지 세웠다.

그러나 이번 연임은 이전과 달리 힘겹게 얻어냈다. 역대 최저 득표율로 메르켈이 이끄는 기독교민주당·기독교사회당 연합은 연립정부 구성이 필요한 상황이나 두 달간 이어진 자유민주당·녹색당과의 연정 협상이 깨지면서 아직 연정을 구성하지 못했다. 이에 사민당과의 연정 협상을 추진 중이나 이 또한 쉽지 않아 보인다.

2015년 난민 위기 때 유럽에서 거의 유일하게 난민 대거 수용 결정을 내리며 ‘난민 엄마’라는 별명을 얻었지만 이를 빌미

로 극우 정당이 부상하는 등 난민 문제는 메르켈의 최대 난제로 꼽힌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꺾여온 관계 속에 미국 우선주의를 견제하고, EU 통합과 유로존 개혁, 실업률 감소 등의 문제도 떠안고 있다.

• ‘개혁 아이콘’ 모하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제1 왕위 계승자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현 국왕의 아들인 빈살만은 2017년 7월 왕세자이자 사촌인 모하마드 빈나예프 내무장관을 몰아내고 왕위계승자 자리를 꿰찼다.

그는 왕세자로 책봉된 이후 자신의 앞길에 걸림돌이 될 왕자 11명과 전·현직 장관 등 수십 명을 부패 혐의로 숙청했다. 전 왕세자 아들인 만수르 빈무크린 왕자는 의문의 사고로 사망했다. 그의 이런 행보는 권력 분점(分占) 관행의 종식을 천명하는 동시에 정경유착 관행에 경고를 받아들여진다.

빈살만은 왕세자로 등극한 이후 사우디 개혁 정책도 거침없이 추진하고 있다. 사우디 여성의 운전을 허용하고 영화 관람 허가 등 완화 조치를 발표했으며 564조원을 투자해 초대형 미래도시 ‘네옴’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 ‘美 첫 여성 경제대통령’ 재닛 옐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100년 역사상 첫 여성 의장으로 2014년 2월 취임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연임 재가를 받지 못해 2018년 2월 퇴임했다. 연준 의장이 4년 단임으로 임기를 마치는 것은 1970년대 말 17개월 만에 사퇴한 ‘최악의 연준 의장’ 윌리엄 밀러 전 의장 이후 40여 년 만에 처음이다. 이사 임기는 2024년 1월까지였지만 관행에 따라 의장직과 이사직 동시 사퇴를 선택했다.

대표적 ‘비둘기파’란 외부 평가와 달리 2015년 12월 거의 10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2017년 12월까지 총 5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결단력을 보여줬다. 또 10월에는 장기적 ‘양적완화’(QE)로 4조5천억 달러까지 불어난 연준의 보유자산을 축소하는 작업도 개시해 출구 전략을 충실하게 시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의장으로 지명한 제롬 파월 연준 이사는 2018년 2월 취임했다. 30년 만에 비(非)경제학 학사 출신 연준 의장이 된 파월 지명자는 2012년부터 연준에서 근무한 비둘기파여서 옐런 체제의 연속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 ‘트럼프 나팔수’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하원 의원과 주지사 출신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유엔주재 미국 대사로 임명됐다. 외교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를 딛고 2017년 4월 시리아 화학무기 사태 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에서 희생된 어린이들의 사진을 공개하며 비난 여론을 끌어내 주목받았다.

북한의 잇단 핵·미사일 발사 시험 때마다 대북 제재 결의안 통과를 주도해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으로 떠올랐다. 특히 11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시험 발사하자 “만약 전쟁이 난다면 북한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압박하는 등 대북 제재에 앞장서며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9월 11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재결의 2375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된 후 연설하고 있다.

헤일리의 역할이 두드러지며 워싱턴 안팎에선 헤일리가 렉스 틸러스 국무장관 후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백인 우월주의에 대한 반감이 큰 가운데 인도계 이민자 가정 출신이라는 것도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평가다.

• 짐바브웨 ‘최장수 독재자’ 로버트 무가베 전 대통령

37년간 짐바브웨를 철권 통치하다 2017년 11월 탄핵 절차를 앞두고 사임한 세계 최장기·최장수 독재자다.

영국 런던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그는 로데지아로 불리던 과거 식민지 시절 영국계 소수 백인의 통치에 맞서 독립운동을 벌여 독립투사로 추앙받았다.

영국 식민통치에서 독립한 1980년 56세로 짐바브웨 총리 중 심제의 초대 총리가 됐지만, 곧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고 부정 선거를 통해 권력에 집착하는 독재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또 부정부패와 사치 행각으로 국가 경제를 파탄으로 몰았다. 특히 국민 대다수가 식량난에 허덕이는 상황에서도 재혼한 부인 그레이스는 ‘구찌 그레이스’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사치스러운 생활을 향유해 비난받았다.

2017년 93세인 무가베는 그레이스에게 권력을 승계하려다가 이에 반발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며 탄핵 위기를 맞았다.

무가베 전 대통령은 1980년 초대 총리에 오른 뒤 37년간 장기집권하다가 작년 11월 군부 쿠데타에 의해 권좌에서 물러났다.

• ‘추락한 민주화 상징’ 이응산 수처 미얀마 국가자문역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으로 노벨평화상까지 수상하며 한때 세계인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으나 미얀마 군부의 로힝야족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목인해 국제적인 비난을 받는 인물로 추락했다.

미얀마 정부군은 종교 문제로 갈등을 빚던 소수민족 로힝야족에 대해 ‘인종청소’에 준하는 무자비한 탄압을 가했으며 학살, 고문, 성폭행 등을 못 견뎌 인근 방글라데시로 도망친 로힝야족만 60만 명을 넘는다.

미얀마 최고 실권자인 수처는 이런 상황에 침묵으로 일관, 노벨상을 박탈해야 한다는 청원이 줄을 이었다. 그가 졸업한 영국 옥스퍼드대는 교내에 설치됐던 그의 초상화를 철거했다.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지자 수치는 2017년 11월 인종청소 현장으로 지목된 서부 라카인주 마을을 둘러봤지만 “평화로운 삶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식의 발언만 늘어남 보여 주기용 행사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 ‘미투 촉발 장본인’ 하비 와인스타인

미국 할리우드의 거물 영화제작자로 여배우들의 성폭행 피해 폭로가 잇달아 터져 나오며 미국 연예계를 발칵 뒤집어 놨다. 피해자만 수십 명에 이르며 이 중에는 귀네스 팰트로, 애슐리 저드, 앤젤리나 졸리 등 유명 여배우들도 대거 포함됐다.

와인스타인은 민주당에 거액을 후원하는 큰 손이어서 성 추문은 미 정계에도 큰 충격을 줬다. 또 이 사건으로 성폭력 경혐을 고백하는 ‘미투(Me Too) 운동이 촉발되면서 성추문 파문이 케빈 스페이시, 더스틴 호프만 등 할리우드의 다른 배우들은 물론 전 세계 정관계와 예술계로까지 확산됐다.

영국에선 마이클 팰런 국방부 장관이 옷을 벗었으며, 미국의 코미디언 출신 민주당 상원의원으로 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로까지 거론됐던 앨 프랭컨도 사퇴했다.

• ‘세계 최고 갑부’ 제프 베저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아마존의 최고경영자(CEO)로, 2017년 10월 빌 게이츠를 제치고 세계 최고 갑부에 올랐다. 온라인 유통에만 머물지 않고 오프라인 사업으로 영토를 확장한 것이 주효했다. 8월 미국 유기농 식품점 홀푸드를 137억 달러(15조5천억원)에 인수한 것을 포함해 2017년 새롭게 넘보기 시작한 영역만 해도 스포츠 의류, 의약품 유통, 티켓 예매, 헬스케어 등으로 문어발을 방불케 했다.

덕분에 아마존 주가는 2017년 12월 현재 연초 대비 55% 치솟았고, 지분 16%를 보유한 베저스의 재산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의 재산은 10월 28일 블룸버그 집계에 의하면 938억 달러(약 106조원)를 기록하며 게이츠를 꺾고 세계 최고 부자가 됐다.

하지만 아마존이 막강한 자금력과 회원망을 앞세워 닥치는 대로 신사업에 뛰어든 탓에 경쟁사는 초토화됐다. 미국의 대표적 백화점 체인인 시어스가 350여 개 매장을 폐점한 것을 포함해 오프라인 유통업계에 피바람이 불었고, 69년 역사의 장난감 전문점 토이저러스는 파산보호 절차에 들어갔다.

베저스를 겨냥한 따가운 눈초리도 적지 않다. 그가 세계 최고 부자로 등극한 사이 게이츠는 막대한 재산을 기부금으로 내놨다. 2014년엔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이 뽑은 ‘세계 최악의 보스’로 선정되기도 했는데 “북미 재계를 대표하는 비인간적 고용주”라는 게 그 이유다.

• ‘외교 브레인’ 조비그뉴 브레진스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1970년대 지미 카터 미국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맡았던 ‘외교 브레인’으로 2017년 5월 26일 89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1978년 대립 중인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중재해 중동평화 협상을 이끌어내는가 하면 같은 해 미·중 관계 정상화를 위해 베이징을 직접 방문해 카터 행정부의 뜻을 전달했다.

퇴임 후인 2003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전쟁에 반

대 목소리를 냈으며 2007년 버락 오바마 당시 민주당 경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2017년 2월에는 뉴욕타임스(NYT)에 기고문을 싣고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비판했다.

브레진스키는 김대중 전 대통령 구명 활동에 나서며 한국 민주화에도 기여했다. 2005년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이 공개한 미국 기밀문서에 따르면 백악관 보좌관이던 브레진스키는 1980년 10월 카터 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이곳(백악관)의 구명 문제에 대한 사정을 살피고자 장교를 보냈다. 그에게 ‘김(김대중)이 사형을 받으면 미국 내 수많은 단체가 항의 시위를 할 것이며 이렇게 되면 북한에만 혜택이 돌아갈 것임을 명확히 알렸다.”고 썼다.

• ‘통일 독일의 주역’ 헬무트 콜 전 총리

헬무트 콜 전 총리가 6월 16일 향년 87세로 별세했다. 16년간 총리를 지낸 역대 최장수 총리인 그는 1982년부터 서독 총리로 재임하던 중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자 ‘조기 통일론’을 주장하며 1990년 통일을 이뤄냈다.

독일 통일의 공을 인정받아 1990년과 1994년 총리 선거에서 연달아 승리했지만 독일 통일의 후유증으로 1998년 총선에서는 패배해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이듬해 비자금 스캔дал마저 불거져 2002년 결국 정계에서 공식 은퇴했다.

그는 현재 유럽을 장악하고 있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중앙 정치 무대에 진출시키고, 초고속 성장을 도와 메르켈 총리의 ‘정치적 스승’으로도 불렸다.



▲ 6월 16일 독일 베를린 헬무트 콜 전 총리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는 가운데 한 여성이 방명록에 애도의 글을 쓰고 있다.

• ‘플레이보이 창업자’ 휴 헤프너

미국의 유명 성인잡지 ‘플레이보이’ 창업자 휴 헤프너가 2017년 9월 27일 향년 91세로 별세했다.

잡지사에서 일하다 27세 때인 1953년 창간한 ‘플레이보이’는 과감한 여성 나체사진으로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성인잡지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했다. 메릴린 먼로의 누드사진을 내건 창간호는 5만 부 이상 팔려나갔다.

잡지의 인기에 힘입어 헤프너는 성인문화의 아이콘이 됐으며 그가 ‘플레이보이 맨션’이라고 이름 붙인 로스앤젤레스 저택은 유명 인사를 초청한 화려한 파티로 유명해졌다. 또 플레이보이의 토끼 모양 로고는 오늘날까지도 미국 성인문화의 국제적 상징으로 여겨진다.